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

성경말씀: 엡6:1-4

목사의 책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준다. “부모의 자녀 양육”, 오늘은 약속한 대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들어야 할 것을 설교하려고 한다.

존 파이퍼의 팟캐스트: 거의 매일 차타고 다니면서 듣는다. 성경 교정하는 일이 끝나면 곧바로 매일 하나라도 번역해서 나누려고 한다. 제목 “존 파이퍼에게 물으세요?”, 인생의 지혜, 믿음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기쁨, 성도란 누구인가? 등을 알려줘서 참 감사하다. 내년부터 가능 얼마 전, 어떤 아버지가 편지를 썼다. “아이들을 신실하게 성경적인 교회에서 키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렸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인가? 너무나 괴롭다.” “성인이 된 아이들을 지금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부모가 제대로 키웠는지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회계보고 해야 한다.” < >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왜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시는가? 창세기에 보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되어 있다(1:28).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아이들을 낳을 필요가 있다. 말2:15, 일부일처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내도록,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 영적 전쟁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과 우리의 아이들은 이 부르심으로 초대를 받았다. 영광과 특권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을 바로 세우고 가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 놓고 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마귀 역시 이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남겨 두려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이 심히 많다. 마귀가 장악한 시스템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한다(요일2:15-17).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세상이 심히 사악하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곳, 노아의 때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세상의 모든 악이 손 안에 들어 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은 성적 유혹, 여자 아이들은 사치 및 탐욕의 유혹,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뚫은 의인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기에 고통이 컸다. 그런데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지 않다. 온 세상, 문화가 다 소돔과 고모라이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적어도 1주일에는 하루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보지 않는 시간,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아이들이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린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지키고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 동성애, 페미니즘, 사회주의 등 반기독교 가치, 더욱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 때의 강력한 공격: 오늘은 고난과 고통 대처 방법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고통에 대한 바른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파이퍼 목사님은 부모들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 1. 고통과 고난은 인생의 한 부분이다.

a.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은 좋은 곳이었다. 모든 것이 좋았다(창1). 우리의 마음과 몸도 마찬가지, 그러나 마귀의 계략에 의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롬3:10).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롬3:23).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에 이르는 존재, 그런데 마귀, 죄, 타락으로 상태가 바뀐 그래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죄이다. 죄로 인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롬5:12), 고통과 고난이 들어오게 되었다(롬8:18, 20-21). 그 결과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다(롬8:22-23).

b.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부인하고 유토피아를 추구하자는 것은 마귀의 방법,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

특히 세상 시스템과 등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 더 큰 고통을 당한다(요16:33; 행14:22). 이것을 우리는 부모들이 가르쳐야 한다. 희희낙락, 만수무강하는 변영 복음은 역겨운 마귀의 일, 그래서 우리 몸이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롬8:23).

c. 세상의 아과 고통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사 46:9-10). 이런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폭풍우, 홍수, 기근, 사나운 짐승, 마귀, 악한 영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님이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영적 전쟁을 기억하라!!!

다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엡3:), 하늘의 모든 창조물들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 주시려고 그러므로 세상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서는 날이 온다. 다만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시간 개념: 천년이 하루 같다. 이제 6일 지났다. 큰 시야로 역사를 보게 해야 한다.

d.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게 하셨다.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모든 것을 동원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 대신 속죄 희생의 어린양 그럼에도 성도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한다.

1.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 예외가 없다(고전10:13).

2. 어리석어서, 탐욕에 의해 당하는 고통, 다윗을 보라.

3.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런 고통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형벌이 아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다 지셨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얻는다.

4. 그러므로 인생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데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다.

5. 많은 경우 아버지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시는 징계이다(히12:3-11).

e.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혜로우심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을 보라. 십자가 고통까지 가셨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뒤에 부활이 있고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힘들어도 여기에는 다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롬8:28).

마귀가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f.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실 것이다.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같아도 저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롬12:19).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이루는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눅 14:14).

2. 크리스천 부모들은 매일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밥 먹을 때, 차타고 갈 때, 잘 때 가르쳐야 한다. 그러려면 부모들이 먼저 이것을 믿어야 한다.

3. 교육과 훈육(엡6:4), 그런데 대개의 경우 사람의 마음은 징계가 없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는 확실하게 교훈과 징계로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잠13:24, 22:15).

최초리로 아이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아이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도전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징계를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다.

4. 아이들에게 자기 부인을 가르쳐야 한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면 안 된다. 절제를 가르쳐야 한다. 이런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다(갈5:22-23). 그래서 근검절약하고 희생하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타락한 본성에 자꾸 기름을 부어 타오르게 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No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좋은 아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시민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

아이들 부모 존중(엡6:1-3), 선생님 존중, 어른들 존중, 협조하는 아이, 부지런히 일하는 아이

5.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잘 이룰 수 있을까?

부모들이 고통과 고난을 잘 감내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롬5:1-3, 약1:2).

그리스도인에게 고통과 고난은 삶에 따라 붙는 거머리 같은 것이다. 고통 뒤에 왕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교리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중요하다.

은혜와 겸손함, 시뉘, 기쁨,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서 부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것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안 하면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된다(엡6:4). 부모도 안 하면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자(눅11:9-13)

아이들을 위한 일곱 가지 기도

1.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실 때에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2.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을 신실하게 부르실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3. 구원받은 뒤 성령님의 변화 사역을 통해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4. 아이들이 불신자와 공평하지 않은 멍에를 지지 않도록, 특히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도록
5. 그들의 생각이 항상 순수하도록(빌4:8)
6.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바치는 아이들이 되도록
7. 또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목사와 사모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